

광진구민 삶의 질 향상 힘써온 '장수' 기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서울시내에 있는 100여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불교계 복지관은 15 곳이다. 그 가운데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20년 세월동안 광진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온 '장수' 기관이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최초 위탁운영을 해오다 1997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용인 대각사가 운영지원 사찰로 2013년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1993년 개관 당시 자양종합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자양 3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설립초기 복지관은 가족기능 강화, 재가복지, 지역사회운동, 사회교육 등 사회복지 기본사업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경험을 쌓았다.

이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무료 경로식당, 부설 효지어린이집 등을 개소했으며, 광진노인주간보호소, 이동목욕봉사센터 등을 개설해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뒀다.

복지관은 뉴타운개발 등의 변화로 주변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혼재된 지역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특성화 사업들을 개발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사업을 확대해 서울시 교육청 지정 대안교육위탁기관인 '나란타학교'를 2006년에 개교하고, 효지어린이집을 신축 확장에 이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11월 14일 오후 3시 건대동문회관에서 '개관 20주년 기념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밤'을 개최한다. 복지관 이용자들이 2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사진 왼쪽).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전경과 장영심 관장(사진 오른쪽).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11월 14일 오후 3시 건대동문회관에서 '개관 20주년 기념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밤'을 개최한다. 복지관 이용자들이 2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사진 왼쪽).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전경과 장영심 관장(사진 오른쪽).

전했다. 나란타대안학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하 최호 위탁형 대안학교다. 학교부적응으로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불교적 가르침을 적용해 사회성과 자존감이 저하된 학생들을 위해 108배 수행, 명상교육을 특성화해 내적성숙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관은 자녀뿐 아니라 부모 및 가족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상담실 '해피마인드(Happy Mind)'를 운영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거나 대인관계, 진로문제, 자녀양육, 가정문제 등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심어주는 부모역량강화프로그램 '우리가족 뉴스타트(New

Start)'도 진행 중이다. 사회생활이 어려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 월 1회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스님이 직접 명상지도와 상담을 도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안학교·가족관계증진 사업 등 불교적 마음철학 담아내

11월 14일 20주년 기념행사

이처럼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이 가족·청소년 정서지원에 힘을 쓰는 데에는 장영심 관장의 복지마인드에서 비롯된다.

1980년대 독일서 13년간 청소년 사회복지자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장 관장은 국내의 복지환경이 물질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장 관장은 "한국인들은 물질만능

주의, 일등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팍팍한 환경을 곧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이 정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처럼 경제적 빈곤보다 정서적 빈곤이 더 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관은 불교적 마음철학이 들어간 프로그램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대외 지원사업에 선정돼 프로그램의 전문·다양화를 시도했다. 서울시공동모금회지원사업에 선정된 '위기가정지원 광진 SOS 구조대', '다문화가정 하나로 사업-우리는 UCC'를 비롯해 한국약육이 뉴트리라이프 건강지킴이사업 '튼튼해가 났습니다!' 등을 실시해 저소득가정 및 소외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밖에 복지관은 2002년부터 광진푸드마켓·뱅크사업을 최초로 운영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층을 위한 식품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 복지관은 '2001 서울시사회복지관 평가 우수복지관 선정' '2012년 서울시 희망은뜰사업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광진푸드마켓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나란타 대안학교 2012년 컨설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결실을 맺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11월 14일 오후 3시 건대동문회관에서 '개관 20주년 기념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밤'을 개최해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간다.

장영심 관장은 "향후 복지관의 미션을 '나누는 기쁨, 누리는 행복'으로 삼았다.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겠다. 좋은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은 더욱 발전시켜 광진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복지 단신

캄보디아, 사회적기업 미용실 개원

로터스월드 10월 26일 개원, 전문미용인 양성에 주안



캄보디아 빈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기업 미용실이 열렸다.

캄보디아 빈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미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장 성관)가 사회적기업 형태의 미용실을 10월 26일 개원했다.

이번에 개원된 미용실은 지난 2011년부터 함께일하는재단, 대한 불교조계종 조계사 등의 지원으로 로터스월드미용센터 자립을 위해 인력을 투입했다. 이번 개원된 미용실은 지난 2011년부터 함께일하는재단, 대한 불교조계종 조계사 등의 지원으로 로터스월드미용센터 자립을 위해 인력을 투입했다.

미용실은 미용센터는 1층에 자리했으며 미용센터는 총 3층으로 이루어져 1층에는 미용실, 2층과 3층은 청소년 교육장 및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1층 미용실은 116

m(35평) 규모이며, 최대 8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샴푸실 등을 갖췄다.

로터스월드에서 운영하는 미용센터는 지난 2013년 3월 캄보디아 시업팀 교육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시업팀 최초, 현재까지 약 7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현지 미용실 및 한국인 미용실에 취업해 빈곤해소를 위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로터스월드는 "미용실 개원을 위해 시장조사를 진행해 손님들의 성향을 파악했으며, 라디오 광고 등 홍보활동을 진행했다"며 "또한 한국제품의 미용용품을 사용해 다른 미용실과 차별화를 두었으며, 한국인 미용사를 채용해 고급화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는 기자

강북노인복지관, 전통한마당 개최

경로의 달 행사, 1400여 어르신 참석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축제에 참가한 주요내빈들이 어르신들께 점심으로 제공될 비빔밥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전태충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은)은 10월 24일 강북구민운동장에서 '강북구 전통한마당,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제17회 경로의 달'을 맞이해 열린 것으로 14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관장 소지은은 "경로의 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나는 기자

행사는 식전공연으로 풍물놀이 리 공연, 포크댄스반 어르신들의 공연을 비롯해 방승댄스, 경기민요 등 문화공연 등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어르신들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웃놀이, 투호, 구슬치기 등 옛 추억 한마당이 진행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늘봄가족성장연구소 개소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가족치료상담센터 열어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은 가족상담치료센터 부설 '늘봄가족성장연구소'를 10월 30일 개소했다.

'늘봄가족성장연구소'는 관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 활동을 펼쳐오던 기존의 치료센터를 노인·부부·가족 등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성장연구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늘봄가족성장연구소'는 심리검

사, 언어·미술·음악·인지·가족치료, 진로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사회성향상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와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늘봄"은 '앞으로 좋게 발전할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말로써 본 연구소의 가치를 잘 알리고 있다"며 "지역 내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더

불어 마을 안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장 보련은 이날 "올 해 마을지향복지사업의 전개를 하면서 협력적인 마을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늘봄가족성장연구소 또한 하나의 마을공동체로서 지역 안에서 성장해나가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활약을 기대했다.

한편 복지관은 같은 날 서울시복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상담치료센터 부설 '늘봄가족성장연구소'를 개소했다.

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중심 복지생태계 조성사업'의 운영기관에 선정돼 서울시복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중심 복지생태계조성사업은

소규모 복지기반 취약지역의 지역주민과 지역 내 민간 네트워크 및 행정이 협력해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공공체 조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나는 기자

교단자정센터 제안, 한국재가불자 10월 선언문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민의의 왜곡, 사부대중의 소외, 중법 위반으로 치러진 선거이다. 금력, 권력, 폭력, 계율 파괴에 철저히 대항하여 청정 교단의 횃불을 밝게 하자.

거의 모든 중도들이 소외된 상태에서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지 20일이 경과하였다. 중도들이 선거에서 소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도라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함께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불자의 희망은 인종에도 없는 작금 조계종단 상황에 대한 해석과 해결책을 내놓기 위하여, 그동안 교단자정센터 이사회는 수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고민하였다.

그 결과 금력, 권력, 폭력, 계율파괴를 개치지 않는 현 종단 집권세력은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서 눈멀게 하고 허망한 중도 화창의 구호로 흑색유언을 하는 '자성과 색신결사'에 대항하여 정권을 세우고 중도들의 적극적 참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하여 제 34대 총무원장 선거 전면에 대한 전문가들의 법적 검토와 우정공 공민에서 청정승가를 위한 41일 간의 정진을 하였던 대중들의 의견을 모아 10월 선언문을 준비하였고, 34대 총무원장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제 34대 총무원장 선거과정과 결과

자정센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선거과정에서의 흑탁 상을 떠나 오로지 법적 관점에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분석하였다.

먼저 교구총회에서 본사주지 등에게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행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살펴본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인단은 교구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선출은 여의상 선거를 뜻한다. 교구총회는 선출직 교구총회의원을 포함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므로 위임은 금지된다. 선거법 제7조는 교구본사 총무원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사주지 등이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인단 선출 후 후보등록이 이루어지면 과거와 달리, 현행법은 총무원장 후보자가 등록하여 확정된 이후에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총무원장 후보자와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구제적 위임이 아닌 본사주지 등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교구총회에서 다수결로 본사주지 등에게 선거인단 선출을 위임한 행위의 실제적 위법성을 살펴본다. 현직 총무원장이 출마한 상황에서 총무원장이 임명권을 갖는 본사주지 등이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끝으로 총무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의 실질적 위법성을 살펴본다. 자승총무원장은 6월 25일 중앙총회 개원식에서 '소임에 대한 마음을 비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고무되어 당일 불교광장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7월 11일 불교광장 출범식에는 20개 교구본사 주지가 지도위원으로 참여하였고, 8월 5일 추대위원회 구성당시에는 18개 교구본사 주지가 추대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출마선언 당시인 9월 16일에는 16개 본사주지가 불교광장에 참여하였다.

이는 당시 총무원장 자신의 불출마를 전제로, 선거 관여가 금지된 본사주지를 포함하여 대다수를 규합한 단체를 새로이 금조출마로써, 다른 총무원장 후보자가 자유로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결국 자신이 출마하여 불교광장 소속 본사주지들과의 타협으로 당선을 얻어냈다. 선거과정 자체가 기만적이고 선거관여가 금지된 본사주지를 이용한 위법이었다. 또한, 승적관리를 맡은 총무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승적부 자료를 가지고 다른 후보자의 승적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반면에 자신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집행부에 중도 있는 승적에게는 총무원장선거 주지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지로 임명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결론적으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조계종법이 정한 바의 대중공사에 의한 선거를 치르지 않음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성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다. 즉 자승총무원장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성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종단의 대표성이 부재하고 신뢰성을 상실한 현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자승총무원장이 스스로 2012년 6월 7일에 한 약속대로 총무원장 직선제를 위한 중헌개정을 완수하고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길 뿐이다.

종단 대표성이 부재한 총무원장체제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길은, 현재로서는 그나마 민의의 왜곡이 적은 직선제로 선거를 하는 방안뿐이다. 우선은 10년 이상의 승람을 가진 스님들이 모두 참여하고, 다음으로는 비윤 범위 내에서 재가중도들이 참여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사부대중이 중도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추후에 종단의 대표성이 확보되고 자정행동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사부대중에 의한 총무원장 추대제로 선거규정이 전환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직선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또한 금력과 권력 그리고 폭력이 난무한 계율파괴의 현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와 비판도 행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제도로 현 상황을 덮으려 하는 '자성과 색신결사'는 즉각 해체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분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종단을 만들어야 한다.

2013년 10월 3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02)2278-3671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501-13521 교단자정센터)